



멕시코시티, 투기 때문에 주택가격 '큰 폭' 상승

멕시코시티에서는 투기 때문에 저렴한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젊은 세대는 주택을 구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은행 대출은 거의 필수다. 20년에서 30년 동안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안정적인 직업과 입증 가능한 소득이 있더라도 멕시코시티의 높은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내집 마련의 꿈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시티에서 노동자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Doctores나 Guerrero 지역 같은 경우는 침실 2개, 욕실 1개가 있는 250만 페소짜리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최소 5만 페소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대출이 이루어지면 최대 30년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에블린(Evelyn)은 2006년 아스칼리엔데스에서 멕시코시티로 이주했다. 그녀는 멕시코 국립대학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장학금 혜택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졸업하고 거의 18년 동안 세를 얻어 세 곳의 사립학교에서 역사 및 영화 교사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을 사는 것이 그녀의 꿈이 되었다. 시티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그녀는 졸업 증명서, 소득 증명서, 그리고 노동자 주택 기금(Infonavit)의 신용 기록을 준비했다. 그러나, 중개인은 그녀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 주택지원처인 인포나빗(Infonavit)에서 필요한 대출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는 교사를 4개월 이하로만 채용하기 때



문에 여름과 12월 방학 동안에는 일자리도 없고 소득 증명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좋은 신용 평가를 받았지만, 월 소득은 2만 페소에서 4만 2천 페소 사이를 오갔고, 매달 3만 페소의 고정 수입을 증명해야 했다.

저렴한 주택에 중점을 둔 멕시코 시티 주택기금(INVI)에 상담했지만 젊은 세대와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대출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는 40세 이상의 미혼 여성이며, 부양 가족이 두 명 있는 에블린은 포기했다.

이처럼,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멕시코시티는 토지 부족, 민간 투자회피,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임금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도시의 토지 부족으로 인해 개발업체들은 300만 페소에 아파트 20채를 짓는 것보다 600만 페소에 아파트 10채를 짓는 것을 선호한다. 비용은 비슷하지만, 10채짜리 프로젝트가 더 빨리 팔리기 때문에 수익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특히, 법 조항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연방 노동법은 월

상환액을 급여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멕시코 사회보장청(IMSS)의 월 최대 급여 한도는 75,000페소다.

즉, 근로자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혜택은 해당 급여 한도로 제한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과 대출 기간이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300만 페소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티 도심 지역의 부동산은 최소 평균 450만에서 600만 페소 사이다.

근로자들은 이보다 작은 300만 페소 짜리 부동산도 만족하겠지만 대출 자격을 얻기 위한 월 7만5천 페소의 소득은 없다.

2025년 멕시코 국립 통계 및 인구조사원(IMCO)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멕시코시티의 근로자 평균 월급은 1만 6,487페소다.

결국, 주택가격 상승과 법규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도심지역에서 주택 구입은 '그림의 떡'으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 구매가 어려워 임대료 눈을

돌리지만 최근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렌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임대료도 최대 18% 상승했다. 도심인 베니토 후아레스 자치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료가 월 9,000~13,000페소에 이르고 있어 근로자들의 한 달 수익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현재, 시티에서는 소형 아파트의 경우 매물이 나오는 즉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구매자 대부분은 비교적 소득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급여액수와 나이, 신용기록을 바탕으로 월 상환액과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은행의 조건을 맞추기에는 일반 근로자들의 주택구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이같은 현상에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 이상의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전혀 없다.

주택을 가진 임대인들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대폭 인상하는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40세 미만의 근로자들이 수도권 내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평균 임대료가 6,000페소에서 14,000페소 사이인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스타팔라파 자치구나, 8,000페소에서 12,000페소 사이인 중심부에 위치한 모렐로스(테피토라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멕시코시티에서 근로자들의 주택 구매는 투기와 매물부족으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사실상 어렵다. 2025년 8월의 현실이다.

2025 법정 공휴일	DÍAS FESTIVOS OFICIALES (Días de descanso obligatorios)
1월 01일 신년	9월 16일 독립기념일
2월 05일 헌법의 날	11월 02일 망자의 날*
3월 21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11월 20일 혁명기념일
4월 17일~19일 부활절*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
5월 01일 노동절	12월 25일 성탄절
5월 05일 뿌에블라 전승기념일*	일부 휴일은 월요일로 변경
(*비공식: 일반적으로 휴무이나 법정 공휴일은 아님)	

환율 정보 (오전10:00분 현재 - Banamex)			
멕시코 페소 / USD		한국 원화 / USD	
살 때	18.08	살 때	1,410
팔 때	19.12	팔 때	1,362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안내	
번호판	끝자리 검사 기간
1, 2번	04-05월 / 10-11월
3, 4번	03-04월 / 09-10월
5, 6번	01-02월 / 07-08월
7, 8번	02-03월 / 08-09월
9, 0번	05-06월 / 11-12월

멕시코,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 부여할 수 없어..

인공지능(AI)이 예술 작품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창작하는 시대에, 멕시코 대법원(SCJN)은 AI가 단독으로 창작한 작품은 저작권 제도 하에서 등록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저작권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귀속된다.

SCJN(대법원)의 판결 이후 8월 28일, 국립저작권연구소(INDAUTOR)는 공식 X 계정을 통해 "이 번 판결은 멕시코에서 AI와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적 선례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SCJN은 만장일치로 연방저작권법(LFDA)이 저작권을 인간에게 귀속하며,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된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인간 저작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자동화 시스템은 저작권에 필요한 인간의 속성인 창의성, 독창성, 개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저작물이 LFDA(인공지능저작물보호법)의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오로지



인간의 창의성, 지성, 감정, 경험에서 비롯된 인간만의 독점적인 인권"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AI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없으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국제 조약과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해석했다.

이 사건의 판결은 작년인 2024년 8월, 레오나르도라는 이름의 AI가 제작한 "가상 아바타 '제랄드 가르시아 바에즈'에 대한 등록 신청을 인간의 개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불거졌다.

신청인은 "창의성이 인간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AI가 생성한 저작물을 제외하



▲ 멕시코 대법원까지 올라가 권리다툼을 벌였던 문제의 가상 아바타 제랄드 가르시아 바에즈 연방 저작권법(LFDA)은 저작물이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하며, 저작자의 개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독창성이라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기각되었다. 대법원에서 판결로 확립된 이번 사례는 앞으로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는 것은 평등, 인권, 그리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베른 협약을 포함한 국제 조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국제 조약이 멕시코가 비인간적 존재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거나 저작자 개념을 LFDA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확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실질적이고 입증 가능한 인간의 기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AI로 생성된 저작물의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AI와 협력하여 생성된 저작물, 즉 인간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독창성과 개인적인 감성이 부여된 감독, 선택, 편집 또는 변형한 저작물은 INDAUTOR에 등록할 수가 있다.

지적 재산권 전문가들은 AI와 협업하여 개발한 창작물을 등록하려면 인간의 개입을 문서화하고 LFDA 규정에 맞춰 창작 과정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DIGA
INMUEBLES

Monterrey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산업용 대형창고 임대 및 판매

몬테레이와 살티요에 근접한 위치 소재
안전한 관리가 가능한 최신 시설의 대형창고
물류 창고에 대한 고민이 해결 됩니다.

최소 4,000 m² (1,200평)
최대 50,000 m² (15,000평)

☎ 사무실: 811-165-6005 / 812-584-9465

✉ 이메일: digainmuebles@gmail.com

🌐 홈페이지: www.diga-inmueble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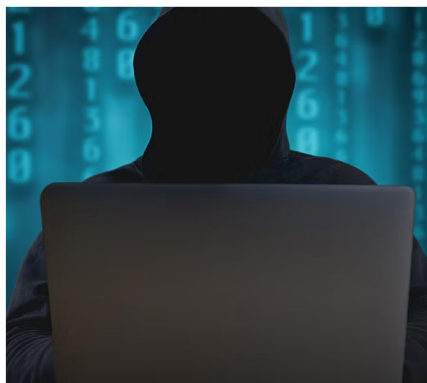
멕시코 사기여행 주의보, 유령 여행사 확인 필수

멕시코 관광부(Sectur)가 사기여행을 경고하고 나섰다. 유령 여행사를 차려놓고 저가에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멕시코 관광부와 소비자 권리를 규제하는 기관인 프로페코(Profeco)가 최근들어 사기 여행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사기 여행'이란 한마디로 유령 여행사를 차려놓고 여행객을 모집한 뒤 선수금을 받아챙기고 사라지는 전통적인 수법이 대부분이다.

국가 관광 등록부를 통해 여행사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면 간단하게 예방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무관심으로 단지 가격이 저렴한 여행을 선호하면서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관광지는 벌써부터 연말 연시 예약이 시작되고 있는데 사기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여행사에서 항공권, 호텔, 투어, 가이드 등 관광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여행사가 실제 등록이 된 업



체인지 확인할 것을 관광부는 당부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안전 및 사법 시민 위원회(Citizen Council for Security and Justice)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소위 "몬타비아헤스(montaviajes)"라고 불리는 여행 사기 신고가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이리

한 관행이 지속되어 여행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유령 여행사가 내세운 매우 저렴한 가격과 매력적인 패키지에 현혹된 경우다.

"싼 가격으로 좋은 여행은 어렵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여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대부분의 피해는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혹시라도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멕시코 관광청에 등록된 여행사인지 사전 확인이 필수이며 계약 내용과 달라 피해를 당했을 경우는 멕시코 전국에 38곳이 있는 소비자 보호원(Profeco)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된다.

멕시코 관광부 Secretaria de Turismo | Gobierno | gob.mx

멕시코시티에서 외국인 체포 증가, 강도가 가장 흔한 범죄

멕시코시티 치안 당국에 따르면, 범죄혐의로 다양한 국적 80명 이상의 외국인을 체포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베네수엘라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시티 경찰에 체포된 외국인 수는 올해 7월13일 기준 총 86명으로 2024년 1년 전체 체포 건수와 거의 비슷해 2025년까지 5개월이 남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

히 증가한 수치다.

체포된 외국인 대부분은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시티 시민안전국(SSC) 산하 정보 및 경찰수사국에 따르면, 지난달 7월13일까지 체포된 86명의 외국인 중 54명이 공공장소에서 보행자를 상대로 한 폭력 강도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동반한 사업 강도는 12

건의 체포로 두 번째로 많이 신고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지하철 승객에 대한 비폭력 강도 6건, 총기에 의한 고의적 상해가 5건을 차지했다. 체포된 외국인 국적을 살펴보면, 베네수엘라 출신이 65명, 콜롬비아 출신이 8명,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4명, 온두라스 출신이 3명, 쿠바 출신이 2명이며, 안도라, 니카라과, 에콰도르, 엘살바도

르가 각 1명씩으로 나타나 대부분 중남미 지역 국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네수엘라인들이 멕시코에서 조직한 Tren de Aragua 갱단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 멕시코 갱단들과 연합세력을 이룰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치안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 이제 필수입니다.!

licenciasinternacionales@outlook.com
www.licenciasinternacionales.com.mx



TU LICENCIA,
UN MUNDO DE POSIBILIDADES.



-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신가요?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멕시코에서 사용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문의 하세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지금 곧바로 연락하세요!

(+52)33 1574 1283
8008384572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를 통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창고와 쇼핑몰 시티에만 600곳

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상공회의소(CANACO)에 따르면, 중국인 사업주들이 운영하는 창고와 쇼핑몰이 시티에만 600곳 이상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유서 깊은 건물에 침입하거나 주차장을 개조하여 부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정식 상거래에 영향을 미쳐 매출이 60% 감소했으며 센트로 주요 상가가 몰려있는 Peña y Peña, Manuel Doblado, Bolivia 거리에는 주거용 아파트가 창고로 변모되거나, Izazaga 89번지 처럼 주차 공간을 불법으



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용도로 설계되지 않은 건물에 보관된 상품의 무게가 잠재적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면서 시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다. 중국인 사업주들의 침입으로 전통적인 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 지역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3,500개 이상의 아시아계 사업체가 웨딩드레스 매장, 가구 매장 등 유서 깊은 업종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주민을 몰아내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멕시코 상업 단체가 중국산 제품을 홍보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면서 "당국이 아시아계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의 토지 용도 및 허가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세 탈루 방지를 위한 세관 검사 강화, 진정성 및 차별화 캠페인을 통해 지역 및 수공예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 시행, 그리고 역사 지구(Historic Center)의 주거 및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구역 제한 구역 설정 등을 권고했다.

관련부처인 경제부는 전국적으로 쇼핑몰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할 뜻을 시사했다.

누에보레온주 성형수술 주의보, 10건 중 5건은 무면허 의사가 시술

멕시코 국립 성형외과학회(CCPERNL)의 자료에 따르면, 누에보 레온 주에서 이루어지는 미용 시술 10건 중 최소 5건은 가짜 전문의 또는 무허가 시설에서 시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에보 레온 주에서는 미용 시술의 50%가 자격증이나 전문 분야가 없는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 환자들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몬테레이에서 지방흡입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은 자클린 야밀레스 브리오네스 토레스의 사례가 그 예다.

누에보 레온 주 성형외과학회(CCPERNL)의 회장인 호르헤 알프레도 레이나 플로레스 박사에 의하면, 이러한 불법 시술이 외과 면허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형 시술에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며, 환자의 몸과 상태를 알 수 없을 경우 내외부 출혈, 세균의 혈관 침범, 그리고 장기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미용사, 미용 시술을 집도하는 간호사, 심지어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집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요청된 수술은 지방흡입술이며, 그 다음으로는 가슴 확대술, 안면 성형술, 코 성형술인데 지난 몇 년간 여러명이 수술 도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25세 자클린의 경우, 부검 결과 세르시오 "N"이라는 의사가 지방흡입술을 시행하는 동안 간과 폐에 발생한 천공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집도한 의사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무면허 시술자로 사망 사고 후 현재 도주 중이다.

미용성형재건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미용성형 수술로 인한 사망자가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허가 학교에서 미용 의학 학위를 남발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올해들어 누에보레온, 치아파스, 타마울리파스 주에서만 무자

격 의사가 시행한 미용 시술로 최소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 보건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이루어졌는데 정상적인 의료센터에서 같은 수술을 할 경우보다 비용이 거의 10배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환자들이 비용때문에 무자격 의사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누에보 레온 보건국에 따르면, 주에는 미용 성형 전문병원으로 등록된 시설 118곳과 미용 의료 및 스파를 운영하는 시설 586곳이 있는데 작년기준 250곳을 현장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47곳이 무허가로 드러나 폐쇄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의사 1명당 미용 의료를 부정기적으로 집도하는 의사가 20명에 해당할 정도로 무면허 시술이 횡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누에보 레온 기준으로 최대 14년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성형수술을 할 수가 있

다.

현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외과의사는 약 2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불법 시술이 문제가 되자 CCPERNL(국가장애인권리보호위원회)은 지방 의회에 국가보건법을 개정하고 전문직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성형수술에 나설 경우 일반의사 면허도 모두 취소해 줄 것을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비용만 중요시하여 자신의 몸을 무면허 시술자에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로 반드시 자격증을 보유한 정식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집도를 받을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한 해 수 많은 외국인, 특히 미국인들이 '의료쇼핑' 목적으로 멕시코를 방문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경 도시에는 지금도 성형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용을 중요시하는 환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비슷한 의료사고는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높후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공항-Pachuca 고속열차 입찰에 中업체 '절반가격' 제시

신 공 항 (A I F A) - 파 추 카 (Pachuca) 고속열차 건설에 두 개의 다국적 기업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유력했던 알스툼은 프로젝트에서 철수했다.

Ciudad Sahagun에 본사를 둔 철도 회사 알스툼(Alstom)은 AIFA-파추카 열차 건설 과정에서 참여를 철회했다. 따라서 스페인 자본의 CAF 멕시코와 중국 자본의 CRRC 주저우 기관차, 두 회사가 입찰 경쟁에 남게 되었다. 이들은 철도 프로젝트 통합을 위해 각각 90억 페소와 50억 페소의 재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제 공개 입찰 절차에 대한 제안서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세 회사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알스툼은 유럽 철도 교통 관리 시스템(ERTMS)을 갖춘 15대의 여객 열차 구매와 정비소 장비 및 정비를 위한 입찰 과정에서 철회 의사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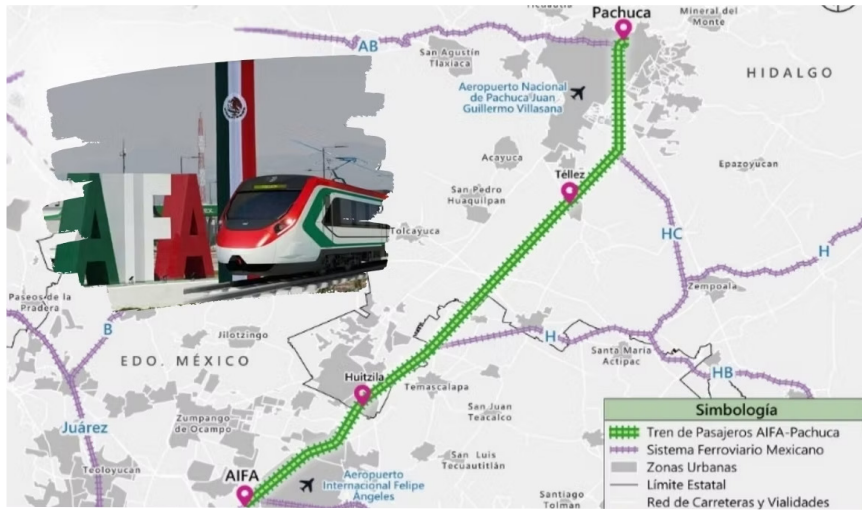
알스툼의 법률 대리인인은 "입찰 공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열차와 정비소 건설 비용은 얼마일까?

스페인 자본인 CAF 멕시코의 제안은 98억 9,124만 8천 페소다.

반면, 중국 자본인 중국철도주저우기관차(CRRC Zhuzhou Locomotive)의 제안은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58억 4,641만 페소로 거의 절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입찰자 간의 차이는 40억 페소가 넘는다.

세부적으로, CAF 멕시코의 제안은 15대의 여객 열차 공급, 시험 및 시운전을 74억 8,812만 페소인데 이 금액에는 운송, 화물 운송, 시운전, 차량 가치의 4%에 해당하는 예비 부품 비용, 그리고 차



량의 정상적인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미, 중기, 대규모 정비 작업장 장비 비용은 9억 779만 6천 페소인데 프로젝트 설계 및 준비, 장비 공급, 설치 모니터링 및 시운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5년간의 종합적인 차량 정비 비용은 5억 7,032만 8,656 페소이며, 여기에는 자격을 갖춘 인력, 기술 문서, 도구, 장비 및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철도주저우기관차(Zhuzhou Locomotive)는 15대 열차 공급 및 시운전에 39억 1,941만 8,000 페소, 정비 작업장 장비에 5억 5,991만 6,000페소, 그리고 차량의 종합 정비에 5억 6,067만 3,000페소를 제시했다. 거의 같은 내용의 입찰이지만 가격은 중국 자본이 훨씬 저렴하게 써낸 것이다.

AIFA-파추카 열차 입찰은 언제 처리될 예정인가?

철도교통규제청(RTA)은 9월 10일 열차 제작사, 정비 및 작업장 장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단, 새로운 마감일이 기존 마감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결정이 연기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날짜는 유동적이다.

최종 후보에 오른 두 개사 중 스페인 기업 CAF는 스페인, 프랑스, 영국, 폴란드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도 생산 시설

을 두고 있으며, 5개 대륙에 정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중국업체(CRRC Zhuzhou Locomotive Co., Ltd.)는 전기 기관차 제조업체로 철도 운송, 청정 에너지, 자동차 및 산업 응용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2년 9월 멕시코시티 정부로부터 4억 3,800만 페소에 2량 객차 굴절 경전철 9량을 공급하는 입찰과 작년 5월, 신규 지하철 노선에 투입될 18량의 2량 굴절 열차를 총 9억 4,600만 페소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멕시코에서 가성비를 앞세워 활발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Compras MX 웹사이트에 따르면, Alstom Ferroviaria Mexico, CAF Mexico, CRRC 주저우 기관차, Esvicon SAPI de CV, Mexico Railway Transportation Equipment S de RL de CV, Mitsubishi Electric de Mexico, Pea Capital, Sinergman S de RL de CV, Taq Sistemas Medicos 해당 입찰이 공개되었을 때 처음 참여 기업은 9개사였다.

이들 회사는 공공 조달 플랫폼을 통해 제안서 공모에 대한 설명 요청서와 참여 의향서를 적시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7월 16일, 알스툼 페로비아리아 멕시코 (Alstom Ferroviaria Mexico), CRRC 주저우 기관차(CRRC Zhuzhou Locomotive Co., Ltd.), CAF 멕시코(CAF Mexico), 그리고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미쓰비시 전기 멕시코(Mitsubishi Electric de Mexico) 등 4개 회사만이 하역장, 차고, 그리고 첫 번째 열차가 보관 및 정비될 예정인 주요 정비 구역 세 곳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기업들은 입찰 참여 의향서만 제출하고 본 입찰에는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파추카 열차 건설에는 65% 이상의 멕시코 국내산 자재를 사용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각 부분별로 점수를 매겨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운전, 정비 및 작업장 장비를 포함한 멕시코-파추카 여객 열차 15량 인수 입찰은 기술 제안서 65%, 경제성 평가 기준 35%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낙찰 업체는 기밀 유지 및 최소 20%의 지분 비율이 포함된 입찰 과정에서 제시된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이 없는 한 거의 절반 가격을 써낸 중국업체가 낙찰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멕시코-파추카 열차는 전기 여객 운송 시스템으로 인구 66만 5천 명의 파추카 수도권과 멕시코 벨리를 연결하여, 멕시코시티 또는 멕시코주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파추카 수도권 주민 1만 5천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데 일일 승객 10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7.56km의 전철 복선으로 깔리게 되는데 4개의 역, 4개의 정류장, 4개의 고가교, 정비 기지, 작업장 및 차량기지 구역, 그리고 4개의 변전소를 포함하는 기반 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열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30km로 파추카 시와 현재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AIFA)-레케리아-부에나비스타-CDMX 지선을 연결하게 되며 멕시코시티 부에나비스타 역에서 파추카 역까지 약 1시간 15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기간은 2년으로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새학기에 돌아오지 않는 학생, 여러 요인 복합적 작용

멕시코 교육 시스템이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인 '학업 중단'에는 경제적, 가족적, 사회적, 성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기획통계국(DGPPyEE)의 자료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2만 2천 명 이상의 초중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부분 아동의 가정 환경,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이 높지만 부모의 질병, 실직, 별거와 같은 가족 내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아동이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가 흔하다.

다른 이유로는, 학업 성취도 저



하, 10대 임신, 동기 부족, 가족 지원 부족, 사회 환경이나 가정 내 폭력과 같은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경우 청소년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터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COVID-19 보건 위기가 문제를 악화시켰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멕시코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생들의 중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0-2021 학년도에는 재등록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이 200만 명을 넘었으며, 여학생과 청소년 또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

였지만, 고등학교는 여전히 가장 뒤쳐져 있다.

즉,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기에 중퇴한 학생들은 대부분 일터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아 다시 학교로 복귀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할리스코 같은 경우 초등학교 중퇴율은 2022-2023년 4,576명에서 2023-2024년 10,000명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교실을 떠나는 학생 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중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장학금, 정규 학교, 학업 및 정서적 지원, 폭력 예방, 그리고 심리 교육적 치료 등 재정 지원, 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광범위한 공공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도시에만 '백만 마리' 유기동물, 무책임한 입양의 상징

멕시코 시티 외곽에 있는 에카테펙(Ecatepec) 시는 멕시코에서 가장 많은 길고양이와 개들이 서식하는 도시가 되었다.

이 주(州)에는 약 백만 마리의 길고양이와 개가 살고 있으며, 그중 70만 마리는 유기와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해 거리에서 발견되고 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번식을 통제할 사람이 없어 개체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에카테펙 시 전체 인구인 165만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 주 동물 구조 활동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주로 무의식적인 반려동물 입양으로 인해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 문제 등의 이유로 생후 몇 달 만에 동물을 버리고 있는데 보호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버려지는 동물의 수가 너무 많아 이미 포화 상태에 직면해 있다.

NITIN MEXICO 동물 보호 협회 관계자는 "개와 고양이는 거리에서 태어나거나 마법처럼 번



식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자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구조 및 중성화 수술이 이러한 개체 수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구조된 개나 고양이가 보호소나 가족과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번식을 조절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거리로 다시 보내지고 있다.

거리의 주요 동물은 개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고양이의 개체 수도 증가하고 있다. 개와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입양으로 버려지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끼 고양이 입양을 요청하면서

해충을 퇴치하고 쥐를 없애기 위해서만 이용하고 버린다는 점이다.

거리에 몰려다니는 개떼와 길고양이들의 문제가 심각하자 에카테펙 시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TNR(포획, 중성화, 방사)이라는 전략이다.

포획한 후 중성화 수술을 시켜 다시 길거리로 내보내는 것이지만 워낙 개체수가 많아 인력과 장비가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주 전역에서 유기견의 수가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는데 동네 곳곳에서 유기견들이 발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책임감 있는 입양을 장려하고 사람들이 동물을 장난감이나 액세서리로만 보지 않고 진정한 존재, 즉 가족의 일원이 될 생명체로 인식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멕시코에는 약 8천만 마리의 반려동물(개와 고양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가 약 4천4백만 마리, 고양이가 1천6백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우남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길거리에 버려진 반려동물은 약 3천만 마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개가 2천만 마리, 고양이가 약 1천만 마리 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50만 마리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물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 전환없이 해결이 어려운 부분인 것이다.

더 촘촘해진 보안 CCTV, "시티 좀 더 안전해 지려나?"

멕시코시티의 범죄율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하다.

시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감시카메라 3만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멕시코에서는 치안공백을 메우는 일이 어느 정책보다 우선순위로 늘 고민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데 이번조치도 이의 일환이다.

이번에 3만 대 이상의 새로운 거리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게되면 이제 멕시코시티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감시가 심한 도시가 될 전망이다.

4억 4,500만 페소 이상을 투자하여 도시 거리에 3만 400대의 새로운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모두 완료되면 멕시코시티 16개 자치구에 설치된 카메라 수는 2024년 대비 36% 증가한 113,814대로 늘어나게 된다.

멕시코시티 지휘통제시민연락센터(C5)에 따르면, 범죄율이 높은 지역과 스마트 폴(smart pole)로

알려진 관광 명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카메라는 고정형 카메라 1대와 도시 모니터링을 위한 360도 카메라 1대, 총 2대의 카메라가 장착되며 도움말 버튼과 시청각 경보 시스템이 있어 비상 사태나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문제 발생 시 관계 당국에 자동으로 알람을 전송하여 별도의 신고없이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카메라다.

이와 관련, 브루가다 시장은 "새로운 카메라가 보안 전략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멕시코시티에 추가 카메라가 설치되면 뉴욕, 시카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와 같은 도시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수의 두 배 또는 세 배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정부의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2010년부터 시작된 감시 카메라 설치의 당시와 비교해 중대범죄 23%, 차량 절도는 25%, 보행자 강도는 20% 씩 감소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가시권으로 들어온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되면 1,580만 명 근로자 혜택

의회가 주 40시간(주5일)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심의하기로 하면서 멕시코도 근로시간 단축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혁의 취지는 휴식 시간 증가를 통해 근로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기업들이 향후 4~5년 안에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는 전제로 논의를 하게 된다.

근로자들에게는 대환영 할 만한 일이겠지만 기업들은 직원을 더 고용하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멕시코에서는 약 3,130만 명이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1,580만 명(50.1%)이 정식 고용되어 있는데 남성이 1,040만 명이고 여성은 540만 명이다. 만약 개혁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이들이 직접적으로 법정 근무일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2025년 1분기 기준 멕시코 통계

청(INEGI) 자료에 따르면, 개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주는 멕시코주로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230만 명, 멕시코시티가 130만 명, 누에보레온과 할리스코가 각각 120만 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아파스, 게레로, 오아하카에서는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75%가 비공식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총 67만 4천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멕시코는 인력 채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업 10곳 중 7곳이 인재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의회의 계획대로 법안이 추진된다면 현재보다 인건비는 15%에서 20%까지, 전문직일 경우 증가 폭은 최대 50%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향후 5년 동안 근무일 단축에 따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최소 8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갈수록 구인난을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업종, 기능, 기업 규모, 지역별로 차별화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2교대, 3교대를 하는 대기업과 달리 멕시코 전국 기업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1일 1교대만 하기 때문에 근무일 단축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근무 시간을 줄이면 운영 시간도 줄여야 하고, 운영 시간을 유지하려면 공백을 메울 다른 인력을 고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한 개혁 법안이 점진적이고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무일 조정으로 인해 비공식적인 노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국립상공회의소(Canaco CDMX) 회장인 비센테 구티에레스 캄포세코는 개혁 시행에 대한 첫 번째 포럼에서 "노동 개혁이 유연성과 점진적인 절차 없이 승인될 경우, 비공식 근로자 수가 55%에서 65%로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마지막 국가 중 하나다.

시기의 문제일 뿐, 주 40시간(5일제) 근무가 가시권으로 들어온 만큼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티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와 비공식 노동자의 소득 차이는?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근 몇 년간 생활비가 크게 올랐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웬만한 소득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여서 일반 근로자들은 대부분 시 외곽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티에 거주하는 경우 생활비는 어느정도가 있어야 할까?

루이스는 25년 동안 구두닦이업에 종사해 왔다. 하루에 500페소에서 1,000페소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높은 수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월 평균 3만페소에 가까운 소득을 얻고 있다.

2023년 국가 재정 건전성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시민들이 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균은 29,500페소(미화 1,580달러)에 이른다.

만약 루이스가 매일 일하면서 높은 일일 소득을 꾸준히 벌었다면, 그는 최소 멕시코시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멕시코시티의 방대한 비공식 경제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급여는 최근 몇 년 동안 생활비가 크게 상승한 이 도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는 1년 이상 근무한 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연간 유급 휴가일은 6일에서 12일로 두 배로 늘어났고 최저임금도 많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 지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340만 명의 멕시코 국민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한 주요 요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지만,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는 여전히 어렵다.

멕시코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022년 8월 8.7%를 기록하며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들어 비교적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가 최근 몇 년간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상승하면서, 일부 수도권 주민들은 더 저렴한 곳을 찾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이제는 일반화 되었다.

싱크탱크 'Mexico ¿como vamos?'의 연구에 따르면, 멕시코 전역에서 대다수(약 8,400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주택, 교육,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말 기준, 비 정규직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은 278페소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일당(614페소)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멕시코 통계청(INEGI)이 정한 사회 계층별 임금 기준에 따르면, 비 정규직 임금은 멕시코에서 가장 큰 하층 계층에 속한다.

멕시코시티 델 바에 지역 펠릭스 쿠에바스 거리에서 견과류와 건포도를 엮은 아마란스를 파는 나이트 상인은 1주일에 1,000페소(미화 54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다.

그는 최저 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이 금액으로는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 두 달마다 6,200페소(미화 332달러)의 멕시코 노령연금을 받아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임금과 연금을 합산하더라도 월 총액은 멕시코시티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저임금인 월 8,364페소(미화 447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수르헨테스에 있는 몬테피오루스 사비논 전당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호르헤는 15일 동안(quinceña) 근무하고 4,500페소를 받고 있다.

민간 경비 회사 시모세(Simose)에 근무하는 호르헤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올랐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 9,000페소(미화 482달러)는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생활이 어렵다. 다만, 호르헤는 의료보험과 연말 보너스 등 복리후생이 제공되는 안정적인 직장에 만족하고 있다.

61세의 엘피디아 후아레스(Elpidia Juárez)는 지난 7년간 스스로를 "국민 신문"이라고 칭하는 엑셀시오르(Excelsior)에서 지나가는 보행자와 운전자들에게 신문을 판매해 왔다.

그녀는 하루 294페소(미화 약 16달러)를 번다고 말했는데 이는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금액이다. 2018년 엑셀시오르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 받던 하루 100페소보다 거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오른 물가로 생활이 팍팍하다.

후아레스는 "직장에서 모든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주 5일 근무라는 점과 급여가 판매 부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팔

리지 않은 신문은 벌금 없이 엑셀시오르에 반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2년 후면 63세에 해당돼 두 달마다 3,000페소를 주는 정부 복지연금을 받을 수 있어 기대를 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 가리발디 근처 아파트에 월 임대료 6천페소를 내며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루이스는 인수르헨테스 수르에 있는 캐딜락 대리점에서 세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6개월째 일하고 있으며, 2주에 약 4,000페소(미화 214달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루 8시간, 주 6일 일하는 루이스는 현재 급여에 만족한다고 했다. 계속 열심히 일하면 급여가 인상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희망을 갖고 있다.

인수르헨테스 수르(Insurgentes Sur)에 있는 Farmacias Similares 약국에서 일하는 앙헬레스(Ángeles)는 주 5일 근무하며 근무 시간에 따라 2주에 3,000~4,000페소(미화 160~214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복지 혜택도 받고 있다. 앙헬레스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았지만,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후안 우르타도(Juan Hurtado)는 40세이며, 인수르헨테스 수르 근처에 있는 매장에서 10년간 일하면서 월 1만 페소(미화 535달러)를 받고 있다. 주 5일, 하루 5시간씩만 일한다고 했는데 이는 멕시코의 표준 주 48시간 근무 시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정규직 고용 패키지의 일환으로 복지 혜택도 받고 있다.

우르타도는 "혼자 산다면 월 1만 페소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직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에서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멕시코시티의 많은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한다"면서 "그들에게는 삶이 없다"고 그는 말한다.

(관련기사 9면)

멕시코에서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일까?

어느나라든, '정당방위'라는 법이 존재한다. 폭력적인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을 의미하는데 얼마 전 멕시코에서 일어난 사건이 '정당방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멕시코시티 Venustiano Carranza 자치구 검문소에서 한 젊은 남성이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크리스토퍼로 알려진 젊은이와 그의 아버지가 헬멧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자 검문소 경찰이 멈춰세우고 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검문에 불응하면서 두명의 경찰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주먹다짐으로 이어졌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21세의 크리스토퍼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경찰관을 힘으로 제압하고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고 있는 경찰관을 공격하려 뒤로 돌아서 몇 걸음 걷는 순간 바닥에 쓰러진 경찰관이 권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머리 뒤쪽을 맞혔고 젊은이는 그대로 곧두박칠치듯 바닥으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두부 외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시민안전국(SSC) 소속 두



명의 경찰관은 곧바로 살인 혐의로, 동료 경찰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구금되었다.

경찰관은 공격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공중으로 총을 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 변호인은 경찰관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발로 차이고 폭행을 당하면서 생긴 경찰의 정당방위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총을 쏜 홀리오 세사르 경찰관은 구치소 구금에서 '주택구금'으로, 동료 경찰관은 무죄 의미로 석방된 상태다.

구금된 경찰관은 앞으로 3개월간 법원의 판단을 받고 구속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판단의 핵심은 '직권남용'이나, '정당방위'냐 여부다.

이번 사건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일어났는데, "왜 경찰의 정당한 검문절차에 응하지 않고 반항했

느냐?"는 의견이 주류로 폭행을 당한 경찰의 정당한 방어행위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해당사건 당사자인 사망한 청년의 아버지는 경찰들이 최근 거래 수익금인, 현금이 담긴 가방을 수색하려 했고, 자신들의 돈을 '강탈'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색에 저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에 차량들이 많았고 일부 운전자가 동영상 찍고 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인에게 총을 쏜 경찰관들에 대한 '정당방위'는 어느 범위까지 일까?

멕시코의 법률은 민간인에 대한 치명적 무력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치안 및 국가방위군 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무력 사용에 관한 국가법(LNUF)에 잘 나

타나 있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치명적 무력 사용은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 예방 및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경찰관이 민간인에 대해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려면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존하며 임박한 위협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언어적 제지(사전경고)와 총기보다 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했음에도 저항하거나 공격성을 보인다면 최종적으로 총기 사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위의 법률을 적용해 본다면 총기사용은 지나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과도하고 불법적인 무력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찰관은 살인 또는 직권 남용 혐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법원도 사회적 여론의 향방을 무시할 수 없어 판단에 신중하겠지만 한 해 수십명의 경찰관이 살해당하는 것과 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많아 이의 참작여부가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면에 이어..

"늘 소득을 늘릴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찾고 있다"면서 현재 건강 보조 식품과 건강식품을 부업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때로는 직접 고객 가정에 상품을 배달하면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디비시온 델 노르테 거리 교차로에 있는 페멕스 주유소에서 4교대로 근무하는 한 젊은이는 페멕스(Pemex) 주유소 직원으로 일한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00페소에서 800페소(미화 27~43달러)를 벌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수입은

운전자들에게 받는 팁으로만 충당된다"면서 "최저임금보다는 높지만, 팁에만 의존하는 수입은 그 특성상 신뢰할 수 없고 일정하지 않아 늘 불안하다"고 말해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음은 멕시코 시티 기준으로 업종별 받는 월 임금 수준이다.

슈퍼마켓 계산원 약 4,900페소(미화 262달러)

OXXO 매장 직원 약 7,700페소(미화 412달러)

청소부 약 7,850페소(미화 420달러)

정원사 8,040페소(미화 430달

러)

웨이터는 팁을 제외하고 약 8,500페소(미화 455달러)

우버 운전기사 약 9,800페소(미화 524달러) (최근 승인된 노동법 개정 덕분에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들은 정식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사도우미 약 9,850페소(미화 527달러)

호텔 접수원 약 10,350페소(미화 553달러)

타케로(타코 요리사 및 판매원)는 약 10,700페소(미화 572달러)

건설 노동자/벽돌공 약 10,900페소(미화 583달러) 등이다.

멕시코시티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월 평균 소득이 최소 약 30,000페소(미화 1,580달러)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소요되는 먼 거리 출퇴근 근로자들의 삶이 없다는 위의 언급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다.

지난 6년간 최저임금이 3배 가까이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가파르게 올라가는 물가로 인해 사실상 생활비는 오히려 더 들어가는 기현상으로 근로자들의 희망 없는 삶은 짧은 미래에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계획

멕시코 정부가 '플랜 멕시코(Plan México)' 경제 구상의 핵심 목표에 따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멕시코 정부가 "다음 달 2026년 예산안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멕시코 기업들을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년간 멕시코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때로는 국내 생산품을 대체하기도

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을 멕시코에 촉구 했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동차, 섬유, 플라스틱을 포함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예상되며, 국내 제조업체들을 보조금을 받는 중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1월에 발표된 야심찬 산업 정책인 플랜 멕시코(Plan México)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멕시코의 대중국 수입 지출은 최근 몇 년간 증가했으며, 동아시아 경제 강국인 멕시코와의 무역 적

자는 2025년 상반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은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차량에 최대 20%의 관세가 부과(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

중국산 신발에 25%의 관세가 부과

의류를 포함한 여러 중국산 섬유 제품에 35%의 관세가 부과 철강, 알루미늄, 목재, 플라스틱, 화학 제품, 종이 및 판지, 도자기, 유리, 전자 제품, 약기, 가구 등 다

양한 품목의 수백 가지 중국산 제품에 5~50%의 관세가 부과

멕시코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중 상당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국가의 상품에도 적용되고 있다.

멕시코와 중국 간 무역 관계 확대와 중국의 멕시코 투자는 2020년 NAFTA를 대체한 북미 자유무역협정(USMC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2026년 검토에서 멕시코 정부의 잠재적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어 이번 조치는 이의 일환으로 경제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멕시코, 보험에 가입된 도난 차량 55%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멕시코에서 차량을 도난 당하면 다시 되찾을 확률이 절반에 불과하다. 대부분 해체되어 부품으로 팔리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밀수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서는 도난당한 개인 차량 10대 중 5대가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도난 차량은 찾기 어려운 자동차 부품이 되어 다른 도시, 주 또는 국가로 운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멕시코 보험협회(AMIS)의 자

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7만 1,206대의 보험 차량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 차량에는 개인 승용차, 오토바이, 상용차가 포함된 수치다.

이 가운데 206,583대의 차량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는데 전체 도난 차량의 55%가 넘는다. 멕시코주는 도난 차량이 10만 1천 건으로 가장 많고, 할리스코주가 5만 4천 건, 멕시코시티가 3만 3천 건, 푸에블라가 2만 1천 건, 과나후아토가 1만 8천 791

대로 그 뒤를 따른다.

미초아칸주가 13,525대, 베라크루스주가 12,649대, 누에보레온주가 11,259대, 모렐로스주 9,518대, 케레타로주 9,256대, 바하칼리포르니아주 8,991대 순이다. 이러한 차량의 대부분은 폐차장으로 보내져 분해된 후 부품별로 판매되면서 범죄자들은 차량 가격의 2배에서 4배에 이르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다른 차량들은 불법 판매를 위해 해외로 반출되기도 하

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멕시코 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을 기준으로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가장 많은 도난신고가 접수되었는데 1년간 61,881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약 170여대의 차량이 도난당한 것이다. 2024년에서 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이 수치는 60,155건으로 약 3% 감소했지만 아직도 상당한 차량이 도난을 당하고 있다.

국제 이주 화물

숙련된 인원과 장비로 직접 서비스 합니다.

- 30년 경력
- 신속한 견적
- 양질의 풍부한 포장재료 사용 (OUT BOUND)
- 다양한 사양의 벤 & 박스트럭 보유 (1톤-25톤)

 **PanTrans HHGDS**

홍승표 전무: sphong@pantrans.com.mx
Cell Phone: 55 5457 5254
이남수 이사: leens@pantrans.com.mx
Web: www.pantrans.com.mx
YouTube: PanTrans México



●●●●●●●●●●●●●●●● kotra K-MOVE 사업 안내

한국 청년들의 해외현지취업&구인기업 채용 지원

구직자 & 구인처 1:1 상시 매칭

멘토링 / 취업박람회 / 세미나 등 현지행사 개최

●●●●●●●●●●●●●●●● 노동법 세미나 개최(9.10수)

참가 신청하기

대상 : 현지 인사 담당자

일시 : 2025.09.10(수) 10AM

장소 : 온라인(ZOOM)

내용 : 멕시코 노동법 및

현지 직원 관리 애로 사항 관련 대응법

kmove.kotramexicocity@gmail.com



kotra

100년 역사 멕시코 빨래비누, "엄마들의 필수품이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멕시코 토종기업으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세탁용 비누업체가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다.

멕시코에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빨래를 할때면 반드시 사용하는 비누, 어떤 집에도 하나쯤은 있어야 할 만큼 필수품목으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지금까지도 생산되고 있는 소테(Zote) 비누가 바로 그것이다.

멕시코 가정에서 부엌같은 존재로 자리잡은 작은 빨래비누가 어떻게 멕시코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을까?

그 해답은 위생 자체가 등한시되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00년 전의 위생이란 묵묵히 세탁처럼 공동의 행위였다.

부유층만이 개인 욕실을 누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같은 우물이나 샘에서 물을 끌어온 공동 돌 빨래터에서 빨래를 했다.

빨래터는 단순한 실용적인 공간을 넘어 사교적인 공간이기도 했다.

힘담이 오가는 왁자지껄한 분위기였고, 그 힘담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져 오늘날에도 누군가 설새 없이 쏟아내는 소식을 두고 '세탁 가십'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La Corona(Zote 전신) 비누의 탄생

할리스코주 테파티틀란(Jalisco, Tepetitlan) 출신의 곤잘레스 파딜라(Gonzalez Padilla) 형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발견했다.

각 마을마다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기름으로 막대형의 거친 비누를 만드는 장인들이 있었지만 당시 비누는 아직 대량 생산되지 않았다.

1920년이였다. 혁명이 끝나고 멕시코시티는 정상화에 대한 열망으로 활기를 띠었다.



에스테반(Esteban), 로레토(Loreto), 그리고 다니엘 곤잘레스 파딜라(Daniel Gonzalez Padilla)는 당시 비누 제조에 귀중한 원료였던 동물성 지방을 팔기 위해 시티에 도착했다.

그런데 누군가 "직접 비누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그들은 비누 장인 제논 마르틴 델 캄포(Zenon Martin del Campo)와 힘을 합쳐 Peralvillo 거리 24번지, Banos Corona 목욕탕 안에 첫 매장을 열었다.

목욕하러 가는 쇼핑객들이 "vamos a La Corona por Japon", 즉 "라 코로나에서 비누를 사러 가자"고 외치기 시작할 만큼 금방 입소문이 났다.

이것이 멕시코에서 가장 오래가는 공장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그들의 첫 번째 제품인 테페약(Tepeyac)이 곧바로 생산됐다.

수요가 급증했으며 10년 만에 노새 수레가 끌던 제품 운반은 동력 트럭으로 대체될 만큼 사업이 번창했다.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이들이 생산하는 코로나(Corona)와 로마(Roma) 같은 비누가 시장을 장악하며 꾸준히 확장하기 시작했다.

확장과 혁신

1950년대에는 에스테반의 아들

안토니오 곤잘레스(Antonio Gonzalez)가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그는 멕시코 주 할로스톡(Xalostoc)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는데, 오늘날까지도 공장이 그곳에 있다. 1954년부터 라 코로나('La Corona's)는 세제 사업을 시작했다.

기존 비누와 달리, 세제는 과학적인 효율성으로 기름때를 용해하는 석유화학 유도제로 제조된 것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1970년대, 라 코로나가 소테(Zote) 생산 공장을 인수하면서 찾아왔다.

원래 케레타로에서 생산되던 이 비누는 향료와 최고급 원료를 첨가하여 소테 로사(Zote Rosa)로 재탄생했다.

고품질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세탁 및 목욕용 비누로 판매되면서 소테 로사(Zote Rosa)는 순식간에 큰 인기를 얻었다.

규제로 인해 목욕 제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후에도 여성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뷰티 블로거들은 소테 로사를 메이크업 브러시 세척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극찬하고 있다.

그리고 소테 로사로 머리를 감았을 때보다 더 윤기 있는 머릿결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어른들이 아직도 있다.

혁신은 사업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했다. 1972년, 라 코로나는 현재 널리 쓰이는 1-2-3 식용유 생산업체인 아세이테스 피노스(Aceites Finos S.A.)를 인수하고 식용유 사업에도 진출했다.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이 변화함에 따라, 회사는 사업 다각화에 나서 액체 세탁 비누를 출시하기도 했다.

장수의 비결

외국 기업에 인수된 많은 멕시코 기업들과 달리, '라 코로나'는 여전히 가족 기업으로 남아 있다.

곤잘레스 파딜라(Gonzalez Padilla)의 후손들은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5,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마치 친인척처럼 대하고 있다.

많은 가족들이 대대로 공장에서 일하며, 단순히 일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회사에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철학은 단순함 그 자체다. 품질과 입소문이 최고의 광고라고 믿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광고를 거부한 것이 좋은 사례다.

소셜 미디어의 부상으로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가격을 낮추고, 멕시코, 미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등에서 새로운 기술에 재투자하며, 소비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는 그들의 의지다.

1986년부터 '라 코로나'는 비누를 해외로 수출해 왔다.

현재 생산량의 15%는 미국, 가나, 중국,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매일 300톤 이상의 Zote(빨래비누)가 생산되고, 매달 3천만 개 이상의 바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세탁비누 10개 중 6개에 La Corona의 흔적이 있다.

특히, 2024년 7억 9,800만 달러 규모였던 세제 시장이 2033년에는 12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회사의 미래는 매우 밝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12면)

교도소 출소자에 사회는 냉담, "갈 곳이 없다"

교도소 수감자가 넘쳐나는 멕시코에서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개발 프로그램'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출소 후 그들을 받아들이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호르헤는 10년 7개월 15일 동안 감옥에 갇혔다.

그는 2014년 3월 7일 바리엔토스에 수감되었고, 2017년 7월 23일 테낭고 델 바예로 이감되어 2024년 10월 22일 형기를 마쳤다. 그는 낱자와 시간을 세며 수년간 살아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정밀함으로 낱자를 기억한다.

수감 중에 그는 '녹아웃: 수건을 던지지 마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복싱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리더십과 헌신으로 동료 수감자들의 존경을 받았고, 형기 말년에는 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출소 후 그는 정식 취업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경비원이나 식품 업계에서 면접을 봤고, 복서로서의 경험을 살려 체육관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도 했다.

그는 마지막 면접에 대해 이렇게 회상한다.

"그들은 제 이름, 기혼 여부, 부양가족이 있는지 물었다. 두 딸의 어머니이자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딸들을 부양해



야하고 교육을 시키기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답했다.

서류를 요구해 원본과 사본을 제출했는데 기본서류 외에도 나의 범죄경력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막 출소한 상태라 그 서류는 없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범죄 경력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이후 다시 연락했을때는 이미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웠으며 미안하다고 했다.

호르헤에게 지난 몇 달 동안 수많은 면접에서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다.

결국, 호르헤의 가족은 먹을 것이 없을 때면 병과 고철을 모아 동전 몇 개를 벌거나, 콩 한 그릇이나 토르티야 한 그릇을 대가로 집 입구를 쓸기도 한다.

"감옥에 있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회피하지만 인내심을 갖겠다" 면서 "교도소에 있을때 범죄 유혹도 많이 받았지만 이를 극복한 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자립할 것" 이라고 다짐했다.

호르헤의 사례는 아주 드문 경우다.

사회는 전과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응을 하지 못한 이들은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시티 사회 재통합 연구소에 따르면, 출소자 중 정식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5%에 불과하고, 20%는 비공식적인 상업 활동에 종사하며, 나머지 75%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취업을 위해 범죄 경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

이는 차별의 한 형태이며, 근로권을 침해하고, 이미 형을 마친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저해하고 있다.

교도소는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복귀를 약속하며 처벌하는 방식 중 하나다. "형을 마치고 나면 사회에 대한 빛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취업 배제는 법적, 윤리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오랜 기간 형벌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헌법 18조에 명시된 사회 복귀 원칙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즉, 두 번째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변화 능력을 무시하면서 재범을 부추기게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을 재건하기로 결심한 경우도 낙인, 노동 배제, 그리고 사회적 소외라는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사회와 국가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사람들을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어 재범의 악순환을 지속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대통령 지지율 77% 고공행진

멕시코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통상 취임 6개월을 허니문 기간으로 보고 이기간이 지나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쾨인바움 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73%다.

이 수치는 지난 4월보다 2% 포인트, 최고치였던 2월 80%에 비해서는 7%포인트 하락한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취임 초기를 벗어난 현재, 좀더 정상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어 세인바움 대통령은 같은 임기 동안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대통령 개인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실시된 법관 선거에서는 10%의 투표율을 보인것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냉담한 평가가 의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면에 이어..

평범한 종이에 포장된 소박한 비누 블록에는 파란색 또는 분홍색 글씨로 굵게 도장이 찍혀 있으며, 스페인어로 "비누"와 "거대"를 의미하는 "하본 소테(jabon Zote)"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소박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소테는 다국적 기업의 끊임없는 마케팅 캠페인 속에서도 살아남았는데 평범하지만 놀라운 정도로 변화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소테는 단순한 비누를 넘어

실용적이면서도 시적인, 멕시코의 회복력과 독창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이 월가의 흐름에 따라 흥망성쇠하는 시대에, '라 코로나'는 할로스트록에서 고목처럼 뿌리를 내리고, 탄력을 유지하며 성장해 소테비누의 분홍빛 향기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빨래비누의 대명사 ZOTE는 흰색 옷에는 흰색 비누를, 색깔 있는 옷에는 분홍색 비누를 사용하도록 구분되어 있다.)